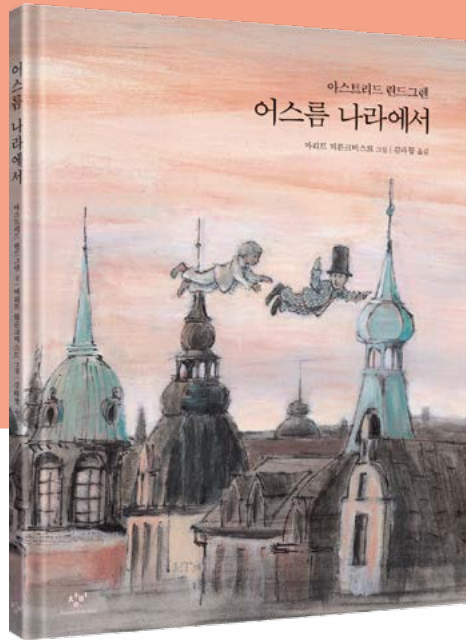


활동지 구성 김리연 김포 장기초등학교 교사

"괜찮아. 어스름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작고 외로운 어린이를 위해 그려 낸 놀라운 상상의 세계



어스름 나라에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 마리트 퇴른크비스트 그림 · 김라함 옮김 | 창비 2022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주인공 '예란'은 해 질 무렵이 되면 '백합 줄기 아저씨'의 손을 잡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어스름 나라'로 간다. 어스름 나라에서는 예란의 아픈 다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린드그렌은 예란이 상상을 통해 슬픔과 시련을 이겨 내는 모습을 그리며 현실의 어린이를 깊이 위로한다. 작고 외로운 어린이에게 보내는 린드그렌만의 다정함이 이 책에 깃들어 있다. 저마다의 '어스름 나라'를 향해 날아오를 아이들이 그곳에서 고단한 현실을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표지 살펴보기

읽기 전 활동지

학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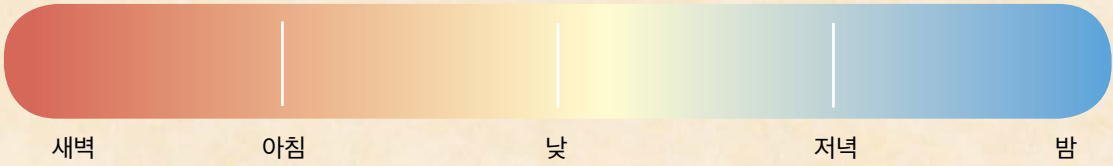
번

이름

표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신비로운 풍경이 그려져 있어요.
하루 중 어느 시간대일지 짐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한 시간대에 표시하세요.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새벽

아침

낮

저녁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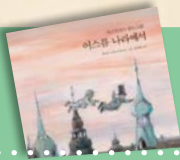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스름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어스름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어스름’은 조금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책의 표지에는 해 질 녘부터 동트기 전까지 어스름한 시간이 아름답게 펼쳐지지요.

여러분이 짐작한 시간대와 맞았나요?



나의 주변 돌아보기

상상

읽는 중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괜찮아. 어스름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백합 줄기 아저씨의 말은 온종일 침대에 있어야 하는 아픈 주인공에게 깊은 위로가 되지요.
위로가 필요한 주변 사람에게 건네고 싶은 말을 써 봅시다.

예시: 받아쓰기 시험에서 쉬운 문제를 틀려서 속상한 친구에게
“열심히 준비했으니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점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나만의 어스름 나라

읽은 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여러분만의 어스름 나라를 상상하고 초대장을 그려 보세요.

나라 초대장

시 간

방 법

입국 순서

지 도